

管山城 戰鬥의 背景

김 주 성*

-
- I. 머리말
 - II. 관산성 전투 전후 사료검토
 - III. 553년 백제의 한강유역상실
 - IV. 관산성 전투의 배경
 - V. 맺음말
-

I. 머리말

관산성 전투는 554년 백제가 신라의 관산성을 쳐들어가 백제 성왕이 급작스럽게 죽자 백제가 대패한 전투이다. 관산성은 대동여지도에 환산이라고 표기되어 있다.¹⁾ 관산성은 신라의 삼년산성과 상주로 진군하기 위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다.²⁾ 삼년산성은 신라의 수도 경주에서 한강유역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해당된다.

관산성 전투는 백제의 대패로 그 영향이 끝나지 않았다. 신라가 한강유역을 기반으로 강성해지면서 함경도 방면과 가야영역으로의 확충 등으로 새로운 세력으로 대두하게 되었으며, 백제는 내부적 진통을 심각하게 앓았다. 고구려는 신라와의 밀약으로 잠시 남쪽 방면으로부터 압력에서 숨을 돌리게 되어, 북방민족의 침입과 새로이 등장하고 있었던 북제와 북주에 나름대로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었다. 요컨대 관산성 전투는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창출에 커다란 한 축을 형성한 전투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산성 전투에 대해서 그 당사자인 백제와 신라의 기록이 너무 소략하여 사건을 재구성해보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주지하듯이 관산성 전투는 551년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여 고구려가 475년 이래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유역을 재차 탈환하였으나, 신라의 진흥왕이 급작스럽게 태도를 변하여 553년에 백제가 탈환한 한강유역을 재차 침공하여 빼앗아버린 것에 대한 보복전투로 일어난 사건이다. 다행히 일본서기에 당시의 상황을 전해주는 사료가 남아있

* 전주교대 사회교육과

1) 삼국사기 43 김유신 열전 下에 김유신의 조부 武力이 성왕을 古利山에서 격파하였다고 하였다. 이 고리산은 環山의 環字가 고리 環字이므로 環山이다. 이 환산에서는 백제식 산성과 백제토기가 발견되고 있다.(정영호, 김유신의 백제공격로 연구, 사학지 6, 1972, pp.49~51)
2) 양기석, 삼년산성의 역사성과 연구성과, 『삼년산성』, 보은군·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2001, pp.218~219

어 재구성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일본서기는 당시 왜의 입장에서 기술해놓은 만큼 사료인용에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서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역면 그대로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발표자는 지난 번 논고에서 관산성전투를 전후한 일본서기 기록을 재검토하면서 관산성전투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재구성해본 적이 있다.³⁾ 그런데 최근 여기에 대해 새로운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⁴⁾ 새로운 견해들을 비판 수용하면서 관산성전투의 배경을 탐구해보도록 하겠다.

II. 관산성전투 전후 사료검토

관산성전투는 잘 알려져있듯이 551년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이 고구려의 한강유역을 공격하여 차지한 영역을 다시 신라가 백제를 공격하여 빼앗은 사건에 분개하여 백제가 신라를 보복 공격한 전투로, 이 전투에서 성왕이 죽었다. 백제가 신라를 보복 공격했다는 개설적인 지식은 극히 축약된 지식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불분명한 사실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것을 우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1. 백합들판의 싸움

일본서기에는 533년 10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보이지 않는 다음 기사가 실려 있다.

A-백제의 왕자 여창(명왕의 아들 위덕왕이다)이 나라 안의 모든 군대를 내어 고려국으로 향했는데, 백합의 들판에 보루를 쌓고 군사들 속에서 함께 먹고 잤다. 이날 저녁 바라보니 들은 비옥하고 평원은 끝없이 넓은데, 사람의 자취는 드물고 개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얼마 후 갑자기 북치고 피리부는 소리가 들리니 여창이 크게 놀라 북을 쳐 대응하였다. 밤새 굳게 지키다가 새벽이 되어 일어나 텅 비었던 들판을 보니 군대가 푸른 산처럼 덮여있었고 깃발이 가득하였다. 때마침 날이 밝자 경계를 입은 자가 1기 모두 5기가 말고뺨을 나란히 하고 와서 묻기를 “... 우리와 더불어 예로써 문답할 만한 사람의 이름과 나이, 관위를 미리 알고자 한다”고 하였다. 여창이 “성은 (고려 왕실과)同姓이고 관위는 한솔이며, 나이는 29세이다.”라고 대답하였다. 백제는 고려의 용사를 창으로 찔러 말에서 떨어뜨려 머리를 베었다. 그리고 창 끝에 찔러 들고 돌아와 군사들에게 보이니 고려군 장수들의 분노가 더욱 심하였다. 이때 백제군이 환호하는 소리에 천지가 찢어질 듯하였다. 다시 그 부장이 북을 치며 달려 나아가 고려왕을 동성산 위에 까지 쫓아가 물리쳤다.(『일본서기』 권19 흠명 14년(533) 겨울 10월)

3) 김주성, 「성왕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 『백제사상의 전쟁』, 2000

4) 노중국, 「5~6세기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고구려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을 중심으로-」, 『북방사논총』 11, 2006

주보돈, 「5~6세기 중엽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관련하여-」, 『북방사논총』 11, 2006

김영심, 「관산성전투 전후 시기 대가야·백제와 신라의 대립」, 『5~6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대가야』, 2007

일본서기에는 이 전투가 553년 10월조에 실려있다. 관산성전투가 554년 7월이니 대략 1년 전에 일어난 전투이다. 이 전투의 시점에 대해서는 필자는 이미 그 시점을 551년 백제가 고구려를 침공할 때의 시점으로 보고, 551년 백제와 신라의 연합군이 고구려를 공격했을 때 백제와 고구려와의 전투를 묘사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런데 최근 필자의 견해에 대하여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는 여전히 종전의 의견이 맞다고 생각하여, 이견에 대한 재논의를 해 보고자 한다.

먼저 다른 논자는 백합들판의 전투기사를 구당서 동이전 신라조에 나오는 다음 기사와 연결시켜 고찰하였다.⁵⁾ 이 기사는 두 가지 다른 해석들이 존재하여 원문으로 제시하겠다.

B-①高祖既聞海東三國舊結怨隙 遞相攻伐 以其俱爲藩附 務在和睦 乃問其使爲怨所由 對曰 先是百濟王伐高麗 詣新羅請救 新羅發兵大破百濟國 因此爲怨 每相攻伐 新羅得百濟王殺之 怨由此始 (『구당서』 동이전 신라조)

이 기사는 신라의 문물·풍속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을 한 다음에 624년에 신라의 진평왕을 柱國樂浪君王新羅王으로 봉한다는 기사 앞 부분까지의 내용이다. 이 기사는 당과 신라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한 전단계에서 당 이전 시기의 신라와 고구려·백제와의 대외관계를 일괄해서 축약 서술한 부분이다. 사료의 성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어떤 한 사건을 세밀하게 묘사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또 복잡한 대외관계를 신라의 입장에서 대답한 신라사신의 말에 신라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서 위 사료를 분석해 보도록 하자. 다른 논자는 先是 이하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B-②전에 백제가 고려를 정벌할 때, (고려가 신라에)구원을 요청해 와 (신라가) 병력을 동원해 백제를 격파하였다. 이 이후로 신라와 백제가 상쟁을 벌였다. 뒤에 백제왕을 사로잡아 죽이니, 이로써 원한이 깊어졌다.(노태돈, 『고구려사연구』, p.432)

또 하나의 다른 해석은 다음과 같다.

B-③지난 날 백제가 고구려를 치러 갈 적에 신라에게 구원을 청하였는데 신라는 군대를 동원하여 백제국을 쳐부수었다.(서영수, 1987, 『중국정사조선전』 역주 2)

신라에게 구원을 요청한 주체를 각각 고구려와 백제로 파악하였다. 고구려로 파악할 경우에는 553년 신라가 한강유역을 백제에게 빼앗을 시점을 묘사한 사료로 해석되고, 백제로 파악할 경우에는 551년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할 때의 상황을 묘사한 사료로

5) 노중국, 전개 논문, pp.54~55

해석된다. 문제는 해석이 아니고 문장을 쓴 사람의 의도이다. 문장상으로 볼 때 전자의 해석은 너무 어색하다. 오히려 후자의 해석이 더욱 문장의 본래 의도와 가깝다고 하겠다. 후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신라가 깨뜨린 대상이다. 백제는 고구려를 칠 것을 신라에게 요청했는데, 오히려 신라는 백제를 깨뜨렸다는 것이다. 신라의 입장에서 신라의 도덕적 정당성을 높이려고 한 대답임을 상기해볼 때 이것은 신라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행동이 된다. 신라는 백제의 요청대로 고구려를 공격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 원문을 다음과 같이 끊어 읽어야 하며, 동시에 해석을 제시해본다.

B-④高祖既聞海東三國舊結怨隙 遞相攻伐 以其俱爲藩附 務在和睦 乃問其使爲怨所由 對曰 先是百濟王伐高麗 詣新羅請救 新羅發兵大破 百濟國因此爲怨 每相攻伐 新羅得百濟王殺之 怨由此始 (『구당서』 동이전 신라조)⁶⁾

B-⑤지난 날 백제가 고구려를 치러 갈 적에 신라에게 구원을 청하였는데 신라는 군대를 동원하여 고구려를 크게 깨뜨렸다. 백제국은 이로 인하여 원한을 갖게 되어 매년 서로 공벌을 하였다.

이렇게 끊어 읽고 해석을 해보아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백제국이 원하는 대로 신라는 고구려를 공격했는데, 왜 백제는 신라에게 원한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것은 신라 사신이 신라의 입장에서 도덕성을 세우기 위한 대답을 했으며, 복잡한 정황을 문장 하나로 단순화시키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이 문장 해석이 이렇게 꼬이게 된 것은 신라사신이 신라가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한 이후, 2년후에는 거꾸로 신라가 백제를 공격한 사실을 빼먹고 말하지 않은 사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문장대로라면 괜스레 백제가 신라에게 원한을 품고 공격해왔다는 식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 문장은 아무래도 해석이 어려웠던 지 신당서에서는

B-⑥初百濟王伐高麗 來請救 悉兵往破之 自是相攻不置 後獲百濟王殺之 滋結怨

으로 바뀌었다.

다른 논자는 위 사료를 1단계는 백제가 고구려를 쳤다는 것, 2단계는 고구려는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였고 신라는 고구려의 요청을 받아들여 구원군을 보내 백제군을 물리쳤다는 것, 3단계는 그 후에 신라가 백제왕을 붙잡아 죽였다는 것의 3단계로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1단계와 3단계는 인정되지만, 2단계의 서술은 전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이런 해석을 도출해낸 것은

C-是歲 百濟棄漢城與平壤 新羅因此入居漢城 今新羅之牛頭方 尼彌方(地名未詳)(『일본서기』 흠

6) 이렇게 끊어 읽는 것은 이미 조선사에서 시도되었다.

명기 13년)

이라 한 기사를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빼앗은 땅을 신라가 553년 다시 빼앗을 때, 신라는 한성을 고구려는 평양을 차지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했던 데에서 비롯된다. 이것은 재언하거니와 신라사신의 대답이 신라의 도덕성을 높이려고 했던 입장이며,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었던 550년대의 상황을 간략히 축약하는 과정상에 빚어진 것으로, 이것을 근거로 신라와 고구려의 밀약을 입증해내며, 더 나아가 신라는 한성을, 고구려는 평양을 차지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하겠다.

노중국은 553년 사료 C를 근거로 신라가 한성지역을 차지하고, 고구려는 신라와의 밀약 대가로 평양지역을 차지했다는 전제아래 백합들판의 전투를 고구려가 차지한 평양지역을 백제가 공격한 전투로 파악했다. 그러했기 때문에 백합들판의 전투를 553년 10월로 파악할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백제가 관산성전투를 일으키기 위한 전 단계의 전투로 파악되는 것이다. 주지하듯이 삼국사기에 의하면 553년 10월 백제는 553년 7월 신라에게 한강유역을 빼앗겼음에도 불구하고 신라의 진평왕에게 공주를 시집보내고 있다. 힘이 약한 신라에게는 공주를 시집보낼 정도로 굴욕적인 외교를 펼치면서 힘이 강한 고구려를 먼저 공격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된다. 신라 진평왕에게 공주를 시집보낸 것은 후술하다시피 진성전투에 대한 신라를 달래려는 시도였으며, 아울러 신라왕실로부터 관산성전투에 대비한 고급정보를 캐내려고 기대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역시 553년 10월 백합들판의 전투는 시기를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553년 7월에 신라가 한강하류유역을 점령하였다면 백제는 고구려와 국경을 서로 접하고 있지 않았다. 그런 상황하에서는 백제가 고구려를 침공하기 위해서는 해로를 통한 수군의 활동이 찾아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료에서 수군의 활동을 찾아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육군의 활동만이 묘사되고 있다.⁷⁾

둘째, 553년 10월에 ‘悉發國中兵’했다는 점이다. 554년 관산성전투에서도 거의 맞먹을 정도의 병력을 동원해야 했던 백제가 1년전에 고구려를 치기 위하여 나라안의 모든 병력을 동원했다면 백제로서는 상당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셋째, 전투상대의 문제이다. 한강유역을 빼앗은 주체는 신라이다. 물론 고구려라는 배후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빼앗은 주체는 신라였다. 당연 백제와의 전투 상대자는 고구려가 아닌 신라이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신라에게는 왕녀를 보내고 고구려와 전투를 행했다면 얼른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보아 553년 10월 백제의 고구려 침공사건은 그 시점을 달리 보아야 할 것 같다. 이 사료에 의하면 「백제군의 환호하는 소리에 천지가 찢어질듯하였다」라고 하여 백제군의 사기가 대단히 높았음을 알 수 있다. 553년 7월 신라에게 한강유역을 빼앗긴 백제

7) 『日本書紀』, 암과서점, 106쪽, 주8번 참조. 고구려와 백제의 국경선이 서로 경계를 맞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문기씨도 “당시 백제와 고구려 사이에는 신라의 영역이 개입하고 있어 제려간의 전투가 가능했던 상황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였다.(「사비시대 백제의 군사조직과 그 운용」, 『백제연구』 28, 1998, 273쪽 주 10)

군의 상황으로 보기에 는 힘들다. 또 東聖山은 평양 동북쪽의 大聖山으로 추정되기도 한다.⁸⁾ 이 추정이 틀렸다고 할지라도 고려왕을 東聖山에까지 쫓아가 물리쳤다는 표현은 고구려의 패배를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553년 백제의 고구려침공은 553년 7월 이전의 551년 백제가 신라와의 합동으로 한강유역을 점령할 때의 상황이 아닐까 싶다. 백제가 나라 안의 모든 병력을 동원했을 때는 바로 이때였을 것이다.

2. 진성전투

삼국유사 기이편 진흥왕조에 의하면 554년 9월에 일어났다고 하는 진성전투가 기록되어 있다.

D-承聖 3年(554) 9월에 백제병이 珍城에 내침하여 남녀 3만 9천인과 말 8천필을 노략하여 갔다. 이에 앞서 백제가 신라로 더불어 군사를 합하여 고구려를 치려고 할 때 진흥왕이 가로되 나라의 興亡은 하늘에 달렸으니 만일 하늘이 고구려를 미워하지 않으면 내 어찌 감히 바라리오 하고 이 말을 고구려에 전하였다. 고구려가 그 말에 감격하여 신라와 通好하매 백제는 신라를 원망하여 來侵한 것이다.

554년 9월에 백제가 신라의 진성을 침공하여 남녀 39,000명과 말 8,000필을 노획하여 갔다는 것이다. 554년 7월에 관산성전투가 있었으니, 2개월 후 쯤에 백제가 신라를 침공하여 큰 전과를 남긴 셈이다. 이렇게 보면 진성전투는 백제가 관산성전투의 패배에 대한 보복 전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2개월 전 관산성전투에서 성왕이 죽고 3만에 가까운 병력을 잃었던 백제가 2개월만에 다시 보복 전투를 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을까. 한강유역을 빼앗기고서도 그 보복으로 행한 관산성전투도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되었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진성전투가 일어난 이유를 D사료에서는 신라가 고구려와 통호했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신라와 고구려가 통호했다는 사실을 백제가 인지한 시점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E-5월 무진삭 을해일에 백제와 가라와 안라는 중부 덕솔 목협금돈과 하내부 아사비다 등을 보내 주상하여, “고구려와 신라가 연합하여 세력을 합쳐, 신의 나라와 임나를 멸하려고 돕니다. 고로 삼가 구원의 병을 청하여, 먼저 불의에 공격하려고 합니다. 병력의 다소는 천황의 마음대로 하소서” 라고 하였다.(『일본서기』 19 흠명기 13년)

이라는 사료에 의하면 552년 5월 이전이었다고 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는 551년 전투가 끝난 직후부터 상호 사신 왕래가 있었을 것이며 얼마 후에는 밀약이 맺어졌을 것이다. 밀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다. 하지만 신라는 이미 점령한 한강상류지역의 장악을 위

8) 『日本書紀』, 암과서점, 108쪽

하여 경북 상주에 상주정을 설치하였다.

삼국유사 진흥왕조는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점점 밝혀지고 있다. 진흥왕은 15세에 즉위한 것이 아니라 삼국사기의 기록대로 7세에 즉위했다고 한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태후섭정도 삼국사기의 왕태후섭정을 저자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하여 잘못 옮긴 것이라라는 지적도 있다.⁹⁾ 이런 맥락에서 승성 3년 9월조의 기사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전반부는 진성전투와 그 결과, 그리고 先是 이후가 후반부이다. 후반부도 두 가지로 세분될 수 있다. 백제와 신라의 고구려 연합 공격 모의기사와 진흥왕의 고구려와 通好 기사이다. 전고에서 필자는 D사료의 백제와 신라의 연합공격 모의를 551년 3월 백제와 신라의 한강유역 공격 시점에 행해진 모의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이 파악은 수정되어야 할 것 같다. 다른 논자의 견해대로 551년 9월 백제와 신라의 한강유역 점령 성공 이후에 승세를 틈 타 고구려를 계속 밀어붙이자는 모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진흥왕의 말로 전해지는 ‘國之興亡在天 若天未厭高麗 則我何敢望焉’이라는 표현은 마치 475년 개로왕의 패사로 백제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구려의 장수들이 장수왕에게 백제를 계속적으로 압박하자는 건의를 올렸을 때 장수왕의 대답과 비슷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준다.¹⁰⁾ 이런 느낌을 받아들이는다면 백제와 신라의 연합공격 모의 시점은 551년 9월 이후 한강유역 점령 성공 이후로 보는 것이 옳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모의의 정확한 시점은 모르겠지만 551년 9월~552년 5월 사이의 어느 시점이어야 한다. 여기서 552년 5월은 백제가 신라와 고구려의 연합을 눈치 채고 왜에 원군을 요청한 시점이다.

그렇다면 진성전투가 일어난 시점을 승성 3년(554) 9월로 보는 삼국유사의 기록은 당연 잘못 된 것이라고 하겠다. 즉 삼국유사의 진성전투 기록을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진성전투와 그 원인으로 서술되고 있는 고구려와 신라의 통호와의 인과관계 설정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게 한다. 백제가 신라와 함께 고려를 정벌해보려 했다는 것은 한강유역에 대한 백제와 신라의 공동작전을 말할 것이다. 이후에 고려가 신라와 通好했다는 것은 552년 5월 이전의 일이다. 이를 원망하여 백제가 신라의 珍城에 쳐들어간 것이다. 관산성전투의 보복을 위해서 백제가 신라의 珍城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삼국유사의 기록대로 진성전투의 시기를 인정하자면 고구려와 신라와의 통호 때문에 진성전투가 일어난 것이 아니게 된다. 거꾸로 고구려와 신라사이의 통호 때문에 진성전투가 벌어졌다면 삼국유사에 기록된 진성전투의 시기는 수정되어야 한다. 고구려와 신라 사이의 통호관계와 진성전투의 선후관계는 인정하지만, 진성전투의 정확한 시기와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는 것이다.

사료 D는 진성전투와 그 원인으로 고구려와 신라의 통호를 제시하여 인과관계로 서술되고 있다. 天의 뜻을 거역하려는 백제를 신라가 제지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즉 백제와 신라의 연합관계를 깬 신라의 비도덕적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있다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9) 이 주장을 편 논자는 삼국사기의 왕태후도 태왕태후의 잘못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남수, 「蔚州 천전리 서석명에 나타난 진흥왕의 왕위계승과 입종갈문왕」, 『한국사연구』 141, 2008)

10) 『일본서기』 14 웅략기 20년조

신라의 정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신라의 피해를 강조해줄 필요성도 있었다. 남녀 39,000여명과 말 8,000필을 백제가 가져갔다고 한다. 인구 4만 이상과 말 8천필을 보유할 수 있는 진성이라면 당시로서는 교통의 중심지이자 방어상의 최고의 요충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진성의 정확한 위치조차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우리가 백제와 신라사에 대해서 구체적 지명까지 고증해낼 수 있는 연구역량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진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도 있으며, 4만에 가까운 포로와 말 8천필은 신라의 도덕성을 돋보이게 해주는 과장된 숫자일 측면도 있다. 결국 진성전투는 551~554년까지 한강유역을 둘러싼 백제·신라 사이의 쟁패과정상에 벌어질 수 있는 전투 중의 하나를 골라, 이 기간의 역사를 신라의 도덕적 입장을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입장으로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짜 맞추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기록을 일연이 비판없이 그대로 실어놓은 것이 다라고 추측된다. 삼국사기에서 이 기록을 취사하지 않았던 것은 편자들의 입장에서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552년 5월 이전에 신라와 고구려 사이에 밀약이 체결되었다고 추측되어, 진성전투는 552년 5월 이후 관산성전투가 벌어지기 이전의 어느 시점에 일어났다고 하겠다. 그러면 珍城전투의 시점은 552년 5월 이후에서 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도 552년 9월 아니면 553년 9월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553년 7월 한강하류유역을 빼앗긴 백제의 신라에 대한 보복전투가 아니었을까 싶다. 『日本書紀』에 의하면

苦都曰 我國法 違背所盟 雖曰國王 當受奴手(『日本書紀』 19, 欽明王 15년 12월)

이라 하여 고도는 성왕을 맹세를 어긴 왕으로 여기고 있다. 성왕이 맹세를 어긴 것은 바로 珍城전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된다.

백제의 백합들판 전투와 진성전투를 모두 관산성전투 진행과정 중에 일어난 전투 중의 일부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¹¹⁾ 이 견해는 단 한번의 전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얼마 만큼의 준비가 필요한지를 소홀히 한 견해이다. 전투를 행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병력동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에 따라 식량을 조달하는 방법, 행군경로와 방법, 숙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행군로상에서 접하는 여러 차례의 전투는 당연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백합들판 전투는 아무래도 백제의 북쪽과 고구려의 남쪽 방면의 전투이고, 관산성전투는 백제로서는 동북쪽의 전투이다. 한번 전투를 치른 병력을 그대로 방향이 전혀 다른 전장으로 이동해서 재차 전투를 벌이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다. 즉 백합들판 전투를 벌이고, 다시 이동하여 진성전투를 벌이고, 다시 또 이동하여 관산성전투를 벌인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서기에 전해지고 있는 기록을 보더라도 동방령이 함산성을 공략하는 전투는 단 하루만의 일이었다. 이렇게 전투는 단기간에 치루어지는 것이었다고 보겠다. 성왕이 관산성전투를 치루는 여창을 위로하기 위해 가기 전에 ‘여창이 행군에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한참동안 잠자고 먹지 못했음을 걱정하여’라고 했던 것은 전투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 일인지

11) 김영심, 전계논문, pp.262~264

를 절실하게 표현해준 것이며, 여기의 ‘오랫동안’ ‘한참동안’이라는 표현은 전투의 단기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시간 전투를 치루고 있는 아들을 걱정하는 의미이지, 실제로 1년여 장기간 동안의 전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Ⅲ. 553년 백제의 한강유역상실

백제가 551년 새로이 점령한 한강유역을 그냥 버렸다고 표현될 정도로, 그리고 한강유역을 점령한 신라장군의 이름이 명기되지 않았을 정도로 신라는 한강유역을 쉽게 점령했다.¹²⁾ 그러면 백제는 왜 한강유역을 그저 내주다시피 했다가 1년 후에는 다시 찾으려고 안달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백제가 한강유역을 내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고구려와 신라가 연합하여 백제를 압박하자 백제는 희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한강유역을 내주고 후일을 기약할 수밖에 없었다고 추리한 견해가 있다.¹³⁾ 그러면 1년 후인 554.7월에는 대외적 상황이 바뀌어 관산성전투가 벌어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1년동안 대외적 상황이 크게 바뀌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검토해볼 문제가 있다. 혹시 고구려와 신라의 밀약이 사실 이상으로 과대 포장된 것은 아니었을까. 당시 고구려는 북방의 변화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551년 고구려를 침공한 존재가 돌궐이었건,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세력이었건 간에 551년에 고구려가 어떤 북방세력으로부터 침공을 받았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552년에는 북제로부터 유민 5천여명을 송환하라는 요구를 받게되어 어쩔 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고구려가 이렇게 북방의 변화되는 정세에 총력전으로 대응하는 사정을 백제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백제는 북방과의 외교를 통하여 고구려를 압박했을 가능성도 있다. 5세기 후반 물길이가 백제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압박하겠다는 제안을 상기해보면¹⁴⁾ 백제와 북방민족과의 통교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었다. 백제는 고구려의 이러한 상황을 틈 타 한강유역 점령을 주도하였고 신라는 고구려와 밀약을 맺어 백제를 압박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일본서기에 자주 보이는 고구려와 신라의 밀약은 가야와 임나를 매개로 왜 세력을 백제 쪽으로 끌어들이면서 왜의 지원을 최대한으로 이용해보려는 백제의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한강유역을 둘러싼 대립은 실제로 백제와 신라의 대립이 주였으며, 고구려는 일단은 제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백제는 왜 신라에게 한강유역을 빼앗긴 것일까. 이것을 한강유역 점령 이후 백제가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라의 공격에 힘없이 무너져버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 견해도 있다.¹⁵⁾ 백제가 한강유역만이

12) 김주성, 전계논문, pp.301 ~ 302

13) 노중국, 전계논문, pp.50 ~ 51; 주보돈, 전계논문, pp.91 ~ 92

14) 연흥 연간(471 ~ 475)에 북위에 乙力支를 파견하여 조현하였다. ...또 스스로 말하기를 “그 나라에서 먼저 고구려의 10부락을 쳐부수고, 비밀리 백제와 함께 모의하여 물길을 따라서 힘을 합쳐 고구려를 취하기로 하고, 울력지를 대국에 사신으로 파견하여 그 可否를 도모한다”하였다.

15) 김영심, 전계논문, p.248

아닌 가야지역을 둘러싸고도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신라와의 대결상태에서 백제가 탈환한 지역에 확고한 통치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백제가 한강유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동의하지만, 그 이유를 가야지역에서 신라와의 대립으로 인한 힘의 분산에서 찾고 있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고구려는 북방민족과의 대립으로 남쪽에 더 이상의 신경쓸 겨를이 없었으며, 가야지역에서는 백제가 540년대부터 신라보다 우월한 입장에 서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역시 신라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백제와 한강유역과 가야지역을 놓고 동시에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의 분산이라는 측면에서는 백제와 신라 똑같은 입장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553년 백제의 한강유역 상실은 대외적인 요인보다는 백제내부의 대립이 오히려 그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다. 한강유역을 점령한 이후 백제내부에서 한강유역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이 표출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을 보여주는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왕실은 새로이 점령한 한강유역에 가야의 경우처럼 군령·성주를 파견하였을 것이다. 왕실이 새로이 점령한 지역을 직접 통치하겠다는 의사 표시이다. 그러나 한강유역은 백제 귀족들의 이해관계가 같이 겹쳐지는 지역이었다. 특히 해씨와 진씨의 경우 자신들의 옛 세력기반을 475년 이전처럼 장악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80여년의 시간이 흘렀다. 이 시간 동안에 많은 것이 변했다. 한강유역에 살고있는 사람들은 백제의 통치에 익숙해있지 않은 사람들이다. 설혹 한강유역이 고구려와 백제의 접이지대로서 어느 한 국가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 없다고 하는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한강유역 민들은 자꾸만 바뀌는 통치자들에게 어떻게 적응해야 할 지 아직은 갈팡질팡 할 상황이었다. 백제왕실이 시도했던 군령·성주파견도 한강유역 민들에게 있어서는 언제 또 바뀔지 모르는 존재들이었을 것이며, 특히 해씨와 진씨의 경우처럼 일정 영역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추구하려고 했던 집단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저항을 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 이것은 왕실의 입장과도 상반된 것이었다고 하겠다. 백제 왕실과 해씨·진씨 귀족세력들간의 갈등과 함께 한강유역 민들의 저항은 신라의 공격에 효율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백제는 신라에게 한강유역을 버리다시피 넘겨줄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IV. 관산성전투의 배경

관산성전투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수정된 연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50.1 백제, 고구려의 도살성 공격

550.3 고구려, 백제의 금현성 공격

551.3 백제·신라, 고구려의 한강유역 공략,

백제의 한강유역 공략전투인 백합들판 전투

552.5 백제, 왜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신라 밀약을 알리고 원병 요청

- 553.7 신라, 백제의 6군 탈취하여 신주설치
- 553.9 진성전투
- 553.10 백제, 왕녀를 진흥왕에게 시집보냄
- 554.7 관산성전투
- 554.10 고구려, 백제의 웅천성 공격

위 연표에 의하면 관산성전투 이전에 일어난 사건으로 백제의 왕녀를 진흥왕에게 시집보낸 일이 주목을 끈다. 553년 10월에 백제는

- F-①冬十月 娶百濟王女爲小妃(『三國史記』 4, 진흥왕 14년)
- F-②冬十月 王女歸于新羅(『三國史記』 26, 성왕31년)

이라 하여 왕녀를 신라에 시집보냈다. 백제의 왕녀를 맞이한 진흥왕은 소비로 삼았다. 이 기사는 백제측의 기사가 남아 있었다고 생각된다. 신라본기의 기록은 「娶百濟王女爲小妃」라고 되어있는데 비하여, 백제본기의 기록은 「王女歸于新羅」라고 하여 小妃와 '歸'라는 약간의 표현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백제가 왕녀를 신라에 시집보낸 까닭은 고구려와 밀약을 맺은 신라를 일단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고구려를 치기 위해서 였다고 한다.¹⁶⁾ 그러나 553년 10월 백합들판의 전투가 551년 전투로 밝혀진 만큼 왕녀를 시집보낸 사건을 백합들판의 고구려 침공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백제의 왕녀 결혼은 진성전투에서 큰 패배를 안겨준 점에 대하여 신라를 달래주는 면과 함께 관산성전투에 대비한 각종 고급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백제의 적극적인 외교수단이었다고 파악된다.¹⁷⁾

이렇게 관산성전투를 준비한 백제는 554년 7월 드디어 신라를 공격하였다. 이에 대한 사료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G-백제가 하부의 한솔 汶斯干奴를 보내 표를 올려 말하였다. “백제왕 신 명과 안라에 있는 왜신들, 임나 여러나라의 한기들이 아뢰어 ‘사라가 무도하여 천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狛과 마음을 같이하여 바다 북쪽의 미야케를 멸망시키려고 하므로, 신 등은 함께 의논하여 有至臣 등을 보내 군사를 빌려 사라를 정벌코자 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황이 유지신을 보내시니, 그가 군사를 거느리고 6월에 왔으므로 신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12월 9일에 사라를 공격하

16) 고구려와 신라의 연결 나아가서 신라의 한강하류 유역 점령이라고 하는 불의의 사태에 직면한 백제는 사세의 불리함을 깨닫고 신라와의 관계회복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왜냐하면 백제로서는 고구려와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어지간한 대가를 치루더라도 신라와의 동맹관계유지는 필요불가결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성왕이 백제가 점령하였던 한강하류유역을 신라 진흥왕에게 빼앗긴 후에 王女를 진흥왕의 小妃로 보낸 것도 그러한 외교적 노력의 하나로써 취해진 조치였다고 생각된다.(노중국, 「高句麗·百濟·新羅 사이의 力關係變化에 대한 一考察」, 『동방학지』 28, 1981, 84쪽)

이와 비슷한 논리는 다른 사람의 경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김태식, 『가야연맹사』, 1993, 300쪽)

17) 북위가 고구려 장수왕에게 혼인을 갖자는 제의에 “위가 옛날 연과 혼인을 하였으나, 곧이어 연을 쳤습니다. 사신을 통해서 그 나라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만약 딸을 보낸다면 풍씨와 다르지 않을까 두렵습니다.”라는 장수왕 측근의 조언은 참조될 만하다.(『위서』 권60, 열전 48 程駿傳)

러 보내면서, 신은 먼저 동방령인 物部莫奇武連을 보내 자기 방의 군사를 거느리고 函山城을 공격하도록 하였는데, 유지신이 데리고 온 백성 竹斯의 物部莫奇委沙奇가 불화살을 잘 쏘아서, 천황의 위엄에 힘입어 이 달 9일 酉時에 성을 불살라 함락시켰습니다. 그래서 빠른 배로 보내 아뢰는 것입니다.

별도로 아뢰기를 “만약 사라 뿐이라면 유지신이 데리고 온 군사로도 충분하지만, 狛이 사라와 마음을 함께 하고 힘을 합하였으므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앞드려 원하오니, 속히 竹斯嶋에 있는 군사들을 보내 신의 나라를 돕고 또 임나를 도와주신다면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또 아뢰기를 “신은 따로 군사 1만인을 보내 임나를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뢰건대 지금의 일은 바야흐로 위급하여 배 한 척만 보내 아뢰는 것이어서 다만 좋은 비단 두필, 탐등 한 영, 도끼 300자루 및 사로잡은 城民 둘, 여자 다섯을 바칩니다. 너무 약소하여 죄송합니다.”라고 하였다.

여창이 신라를 정벌할 것을 계획하자 기로가 “하늘이 함께 하지 않으니 화가 미칠까 두렵습니다”라고 간하였다. 여창이 “늑았구려, 어찌 겁내시오. 우리는 대국을 섬기고 있으니 어찌 겁낼 것이 있겠소”라 하고 드디어 신라국에 들어가 久陀牟羅에 보루를 쌓았다. 그 아버지 명왕은 여창이 행군에 오랫동안 고통을 겪고 한참동안 잠자고 먹지 못했음을 걱정하였다. 아버지의 자애로움에 부족함이 많으면 아들의 효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하러 갔다. 신라는 명왕이 친히 온다는 것을 듣고 나라 안의 모든 군사를 내어 길목을 끊어 격파하였다. 이때 신라에서 좌지촌의 딸 키우는 노예 菩都(다른 이름은 谷智이다)에게 “고도는 천한 노예이고 명왕은 뛰어난 군주이다. 이제 천한 노예로 하여금 뛰어난 군주를 죽이게 하여 후세에 전해져 사람들의 입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얼마 후 고도가 명왕을 사로잡아 두 번 절하고 “왕의 머리를 베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명왕이 “왕의 머리를 노예의 손에 줄 수 없다”고 하니, 고도가 “우리 나라의 법에는 맹세한 바를 어기면 비록 국왕이라 하더라도 노예의 손에 죽습니다”라 하였다.(다른 기록에는 “명왕이 胡床에 걸터앉아 차고 있던 칼을 곡지에게 풀어주어 베게 했다.”고 하였다.) 명왕이 하늘을 우러러 크게 탄식하고 눈물흘리며 허락하기를 “과인이 생각할 때마다 고통이 골수에 사무치니 아무리 피를 내 보아도 정말로 살아날 수가 없구나”라고 하고 머리를 내밀어 참수당했다. 고도는 머리를 베어 죽이고 구덩이를 파서 묻었다.(다른 기록에는 “신라가 명왕의 두골은 남겨두고 나머지 뼈는 백제에 예를 갖춰 보냈다. 지금 신라왕은 명왕의 뼈를 북청 계단 아래에 묻었는데, 이 관청을 ‘도당’이라 이름한다”고 하였다.) 여창은 결국 포위되어 빠져나오려 했으나 나올 수가 없었고, 사졸들은 놀라 어찌할 줄 몰랐다. 이 때 활 잘 쏘는 사람 筑紫國造가...계속해서 빗발치듯 화살을 쏘아대는 것이 더욱 힘차고 게을리지 않아 포위한 군사를 쏘아 물리쳤다. 이로 말미암아 여창과 여러 장수들이 셋길로 도망쳐 돌아올 수 있었다. 여창은 축자국조가 포위한 군사를 쏘아 물리친 것을 칭찬하여, 그를 높여 ‘鞍橋君’이라 이름하였다. 이때 신라장수들이 백제가 지켰음을 자세히 알고 드디어 멸망시켜 남겨두지 않으려 하였는데, 한 장수가 “안된다. 일본 천황이 임나의 일 때문에 여러 번 우리나라를 책망하였다. 하물며 다시 백제관가를 멸망시키려고 도모하다가는 반드시 후환을 부르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므로 그만 두었다.(『일본서기』 19 孝德15년 12월)

위 사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전반부는 동방령이 함산성을 공략했다는 사실, 후반부는 여창의 전승과 성왕의 전사, 여창의 구사일생 탈출로 구성되어 있다. 상당히 구체적인 기사를 전하고 있어 우선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시간상으로 가장 빠른 사건은 후반부의 여창이 기노들과의 전략회의라고 생각한다. 전략회의도 없이 그냥 동방령이 무작정 공격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전략회의에서 기노들은 관산성전투를 반대하였다. 기노들이 반대한 이유는 551년 한강유역 회복으로 나타난 귀족세력의 재편성이 다시 되풀이 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을 고려해서 일 것이다. 왕실의 입장에서는 달랐다. 근초고왕과 근구수왕대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성왕의 입장에서는 한강유역을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여창은 한강유역회복 전투를 강행하였다. 이때 동방령은 여창의 수석 지휘관 중의 한명이었을 것이다. 그는 함산성전투에서 승리하였다. 함산성, 곧 관산성으로 옥천이다. 옥천은 보은의 삼년산성을 접근하기 위한 교통상의 요충지였다. 여기에서 여창은 일단 성공하였다. 보루를 쌓았다는 구타모라는 어디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옥천부근이었다고 짐작된다. 문제는 성왕이 여창을 위로할려고 떠난 것이다. 성왕이 겨우 50여기의 친위대만을 거느리고 왕궁을 떠났다.¹⁸⁾ 성왕이 그러했던 것은 옥천까지의 통로가 이미 백제군에 의하여 확보되었다는 자신감에서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정보가 새어나간 모양이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H-① 32년 가을 7월에 왕은 신라를 습격하고자 하여 친히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狗川에 이르렀다. 신라의 복병이 일어나자 더불어 싸웠으나 亂兵에게 해침을 당하여 죽었다. 시호를 쫓이라 하였다.(『삼국사기』 26 백제본기 4)

이라 하여 소규모 부대와와의 전투에서 우연히 죽은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신라본기에서는

H-② 1년 가을 7월에 명활성을 수리하여 쌓았다. 백제 왕 명농이 가랑과 함께 관산성을 공격해 왔다. 군주 각간 우덕과 이찬 탐지 등이 맞서 싸웠으나 전세가 불리하였다. 신주 군주 김무력이 주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교전함에, 비장 삼년산군의 고간 도도가 급히 쳐서 백제 왕을 죽였다. 이에 모든 군사가 승세를 타고 크게 이겨, 좌평 4명과 군사 2만9천6백명을 목베었고 한 마리의 말도 돌아간 것이 없었다.(『삼국사기』 4 신라본기 4)

이라 하여 정규전에서 성왕을 살해한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일본서기와 삼국사기의 기록을 아울러서 생각해 볼 때 여창의 승리에 고무된 성왕이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 전장으로 향하던 중 이런 정보를 입수한 신라의 신주 군주 김무력 휘하의 삼년산군 비장직을 맡은 고간 도도(혹은 고도, 곡지)가 지휘한 게릴라부대에 의하여 살해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성왕의 죽음을 듣고 급하게 군대를 회군한 여창은 신라군에게 포위되어 거의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18) 이를 일본 궁내성본 삼국사기에서는 5千으로 표기되어 있다.

당하였던 것이다. 한편 신라도 이 전투에 거의 국가의 전 병력을 동원했을 정도로 국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국왕의 명령을 받은 군주 우덕과 탐지의 참전과 함께 김무력의 참전으로 볼 때 그러하다. 이 전투에서 김무력은

H-③ 할아버지 무력은 신주도행총관이 되어, 일찍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백제왕과 그 장수 4 사람을 잡고 1만여명의 머리를 베었다.(『삼국사기』 41 김유신전 상)

이라 하여 백제군 1만여명을 전사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김유신 열전의 기록은 당연히 김유신의 가계를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부대원들의 활약이 더욱 돋보였다는 의미이다. 아마도 일본서기에 기록된 G사료에 ‘신라는 나라안의 모든 군대를 동원하여’라고 하였듯이, 김무력, 우덕, 탐지 외에도 다른 부대가 참전했을 가능성이 높다.

우연한 성왕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 성왕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전투를 행하지 말라는 기로들의 책임추궁과 함께 백제 왕실을 곤경으로 빠뜨리게 된다. 여기에서 보듯이 관산성전투는 왕실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성왕은 22부사제, 5부5방제 등을 통하여 강력한 권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것은

I-奈率馬武 是王之股肱臣也 納上傳下 甚協王心 而爲王佐 (『日本書紀』 19, 欽明紀 11年 2月)

馬武는 王命의 출납을 담당하였으며, 임무 수행시 국왕의 마음에 부합하였던 까닭에 왕좌가 되어 ‘股肱之臣’이라고 불리웠다. 馬武는 국왕의 측근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馬武와 같은 국왕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들을 등용하여 성왕은 대성팔족을 견제하였을 것이다. 또한 대성팔족끼리의 상호견제를 통하여 왕권의 극대화를 꾀하기도 하였다. 이런 모습을 살펴보기 위하여 성왕대 왜에 파견된 사신단을 살펴보면 흥미롭다. 우선 이를 표로 만들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년대	인물	목적	비고
547. 4	前部 德率 眞慕宣文・奈率 奇麻	구원병요청	
547. 4	下部 東城子言	德率 汶休麻那와 교대시킴	
548. 4	中部 杆率 掠葉禮	구원병과견 중지요청	548. 7 掠葉禮귀국
550. 2	왜가 馬武 대사과견 요청		
552. 5	中部 德率 荔今敦・河内部 阿斯比多	구원병 요청, 고려・신라연합 알림	553. 1월 中部 杆率 木荔今敦・河内部 阿斯比多 귀국
553. 1	上部 德率 科野次酒・杆率 禮塞敦	구원병 요청	
553. 8	上部 奈率 科野新羅・下部 固德 汶休帶山	구원병 요청	
554. 1	中部 木荔施德文次・前部 施德 曰佐分屋	구원병 강력히 요청	
554. 2	下部 杆率 將軍 三貴・上部 奈率 物部烏	구원병 요청	554.3 部 木荔施德文次 등이 귀국

554.12	下部 杆率 汶斯干奴	신라격과 알리면서 구원병요청	
--------	------------	--------------------	--

550년대 왜의 청병사로 파견된 사람들중 대성팔족으로는 목씨가 많았다. 목씨가 계속해서 왜에 청병사로 파견되었던 점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¹⁹⁾ 사씨와 목씨와의 사이에 무언가 미묘한 변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목씨는 한강유역 확보라는 사건을 통하여 사씨의 세력을 약화시키고자 의도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사씨와 목씨는 사비천도 이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였을 것이다. 이에 목씨는 사씨세력을 꺾지 않고서는 최대세력으로 부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목씨는 사씨의 세력하에서 벗어나 제 1위의 권력으로 부상해보기 위하여, 성왕은 사씨와 목씨의 세력을 이간질하기 위하여 왜 청병사 구성에 목씨를 넣었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권력을 강화한 성왕은 근초고왕과 근구수왕대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한강유역 회복을 달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꿈의 실현을 위한 도중에 갑작스런 성왕의 죽음은 강력한 권력자를 잃게 되어 상당한 정치적인 진통에 빠지게 되었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단편적인 사료들을 짜맞추는 형식으로 관산성전투의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먼저 관산성전투를 전후한 기록을 검토하면서 백합들판의 싸움을 553년 10월이 아닌 551년 3월 백제와 신라가 연합하여 고구려의 한강유역을 공략할 당시의 기록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554년 9월에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 진성전투를 553년 9월로 수정하였다. 진성전투가 기록되어 있는 삼국유사의 진흥왕조는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기록으로 파악되고 있다. 삼국사기 편찬자들도 이 기록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사하지 않았던 것이다.

주지하듯이 신라가 백제가 차지한 한강하류유역을 태도를 돌변하여 공략하자, 이를 되찾기 위하여 백제는 554년 7월에 관산성전투를 일으켰다. 문제는 신라가 태도를 돌변하여 백제가 차지한 한강유역을 공략했을 때 일본서기에 의하면 백제가 한강유역을 버렸다고 표현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삼국사기 신라측의 기록에도 이 전투를 지휘했던 장군의 이름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 기간 일어난 각종 전투에는 신라 측 지휘관의 이름이 반드시 명기되어 있는 관례에 비추어 볼 때 흥미있는 사실이다. 백제가 한강유역을 버렸다는 일본서기의 기록이 나름 신뢰할 수 있다는 점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러면 백제는 553년 7월에는 버리다시피한 한강유역의 땅을 1년 후인 554년 7월에는 다시 되찾기 위하여 왕녀를 진흥왕에게 소비로 시집보내는 등 갖은 노력을 다했을까라는 의문이 당연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신라가 고구려와 밀약을 맺어 백제를 소외시키자 후일을 기약하고 백제는 한강유역을 신라에게 버리다시피 내어주었으며, 1년 후에 관산성전투를 벌였다는 것이다. 이 는

19) 양기석, 「백제 위덕왕대 왕권의 존재형태와 성격」, 『백제연구』 21, 40쪽

지의 핵심은 1년만에 백제를 둘러싼 대외환경이 크게 변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신라와 고구려의 밀약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필자는 백제를 둘러싼 대외적인 측면보다는 백제 내부 문제인 왕권과 귀족세력, 귀족세력 내부의 권력관계에 주목하였다. 왕실은 백제왕실의 발상지인 한강유역 회복을 통하여 왕실 권위회복을 기도하기 위하여 군령·성주를 파견하였으며, 해씨와 진씨는 자신들의 옛 세력기반인 한강유역을 자신들의 예전 권력을 되찾기 위한 기반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한강유역은 이미 80여년간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한강유역에 살고있었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백제의 출현으로 인한 변동에 익숙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과장을 예상하지 못한 백제는 결국 신라의 공격에 힘없이 한강유역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 1년후 백제는 내부적인 문제를 완전히 수습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관산성전투를 일으켰다가, 예기치 못한 성왕의 죽음으로 백제의 내부는 더욱 심각한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었다.